

5/5/24

설교 제목: 주 안에 서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빌립보서 4 장 1-9 절

- (빌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 (빌 4: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 (빌 4:3)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 (빌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빌 4: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 (빌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빌 4: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빌 4: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 (빌 4: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지키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여 갈등이 있었고,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몸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자들이 있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자들이 교회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아 주고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적인 충고로 '주 안에 서라'고 합니다.

(빌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는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실 것이므로, 그날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므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 밑에 형제 자매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역의 열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한 결과 얻은 결과물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 정직하고 충성되어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빌 4: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갈등을 일으킨 유오디아와 순두게 두 자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례적으로 개인의 이름을 밝힌 것으로 보아 이들의 갈등이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활동하던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으나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같은 갈등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방법이나 수단 등에 대한 각자의 견해 차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의 경우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일체가 되어 행해야 합니다.

그리했을 때 교회가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 본연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들째, 복음의 일꾼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빌 4:3)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멍에를 같이 한 자'는 복음 사역에 함께 수고한 자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하나로 짐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힘쓰던 여인들과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확신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복음의 일꾼들을 도와야 합니다.

직접 동역을 하거나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셋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빌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 기뻐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당장에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와 죄로 인해 야기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은 죄로 인해 야기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값으로 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영생하게 된 것입니다.

(요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권리를 수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무를 보기 보다는 숲을 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당장의 일만 들여다 보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당장의 상황에 연연하기 보다는 인생 전체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핍박하나 그럴지라도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넷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합니다.

(빌 4: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온유함 친절함 너그러움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합니다.

불신자들과 심지어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베풀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두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선악 간에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죄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용서함을 받은 사랑의 빛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합니다.

(빌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도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염려대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표시합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생깁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 6: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론 우리가 구한 것과 정반대의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섯째,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 받을 만한 것, 칭찬 받을 만한 것,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들을 행하라고 명합니다.

(빌 4: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림은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땅에서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삶을 요약합니다.

첫째, 성도는 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범사에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선과 거짓과 속임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둘째, 성도는 경건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건하다는 말 '셈노스'는 존경할 만하다, 품위있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도는 옳은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의하거나 위법을 하거나 부당한 일을 해서는 않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넷째, 성도는 정결해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부정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성도는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존경받을 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삶을 통해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빌 4: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흠이 없는 인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본받아 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요 가장 든든한 보장이며 보증입니다.

평안은 마음의 평안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 물질적 여유 환경적 평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 48:17)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사 48:18)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사 48:19)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완전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